

## 호남 유흥업은 불야성

### 업소 우후죽순... 부산 감소와 대조 단란주점 등 지난해 소비 1,200억 매출 4년간 59% 급증 전국 최고

극심한 불황에도 호남지역 유흥업소의 매출 성장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1년동안 지역 유흥업소에서 소비되는 돈이 1천2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제청과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에 따르면 광주지방국세청 관할인 호남지역 과세유흥장소(유흥업소)가 지난해 신고, 납부한 개별소비세는 903개 업소에서 10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업소 수로는 6.6% (54개), 세액으로는 3.8% (4억원)가 늘어나 전국 6개 지방국세청 가운데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7천491개 업소에서 1천589억원의 개별소비세를 납부해 전년대비 업소 수로는 5.8% (409개), 세액으로는 1.3% (21억원) 증가했다.

과세유흥장소는 매출(부가가치세 10% 제외)의 10%를 개별소비세로 내고 있어 이는 지난해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유흥업소의 매출이 1년전에 비해 늘어난 것을 의미한다. 과세유흥장소는 카바레·단란주점·나이트클럽·요정 등 속칭 유흥업소를 말한다.

특히 호남지역 유흥업소의 개별소비

비세 납부율은 지난 4년동안 54.3% (세액기준)나 급증해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증가율(4.6%)은 물론 대구청 (20%), 부산청(10.3%) 증가율보다 훨씬 높았다.

이에 따라 호남지역 유흥업소들의 매출도 2004년 이후 4년동안 60% 가까이 급증해 전국 최고 증가율을 보였다.

유흥업소 매출에는 개별소비세 외에도 고객들이 내는 봉사료(일명 팁) 5%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지난해 호남지역 유흥업소의 매출액은 1천166억원에 달했다. 지역

유흥업소의 매출액은 지난 2004년 735억원에서 4년만에 58.6%인 431억원이나 늘어 매출액 성장률도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업소당 매출액도 2004년 9천900만 원에서 지난해 1억1960만원으로 20.8%가 늘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평균(2억1천210만원, 9.9%)과 부산청(1억7천만원, 11.3%)에 비해서는 낮았지만 대구청(3.8%)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호남지역 유흥업소의 매출 성장률이 높은 이유는 타 지역에 비해 돈벌이가 적은 지역 경제구조상 유흥업소

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면서 시장과 이를 키운 측면이 강하다.

실제로 4년동안 업소 증가율을 보면 호남은 27.7%나 증가한 반면 전국 평균은 4.9%에 불과하고 부산은 오히려 0.9%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유흥업소 매출은 사업주들이 자진 신고하는 개별소비세를 기준으로 추산하고 있어 실제 지역 유흥업소의 매출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12월 26일 광주 공연

광주일보사는 '최강의 콘서트 황제' 김장훈·싸이 합동 공연 '완타치'를 개최합니다.

이번 공연은 '한관-싸이의 올나잇스탠드', '두관-김장훈 원맨쇼', '세관-김장훈·싸이의 완타치', '막관-이관사관' 등 모두 4개의 스테이지로 꾸며집니다. 특히 '이관사관'은 관객들의 호응만 있으면 무대를 떠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두 공연꾼들의 공연 시간을 예측할 수 없는 '앙코르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2009년 한해의 스트레스를 한방에 날려 버릴 '완타치'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일시=2009년 12월 26일(토) 오후 7시
- 장소=광주광역시 영주실내체육관
- 인터넷 예매=티켓마루, 인터파크
- 공연 문의=220-0541
- 주최=광주일보사, KCTV광주방송
- 주관=공연마루

光州日報社

## 쌀 너무 쌓인다

### 전남 재고 넘치는데 올 벼 생산량 전국 1위

전남지역 쌀 재고량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올해 전남 쌀 생산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쌀 재고량이 더욱 늘어날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별 생산량을 고려한 정부의 쌀 수매와 쌀 소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 쌀 예상 생산량'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총 468만2천t의 쌀이 수확돼 전년 대비로는 16만1천t(3.3%) 감소하지만, 평년보다는 11만7천t(2.6%)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2006년 468만t, 2007년 440만t, 2008년 456만t에 비해 많은 쌀 수확량으로 평년(최근 5년 중 최대·최소 수확 연도 평균)의 456만15천t 보다 늘어 풍년이 라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전남 쌀 예상 생산량은 전년 90만1천t에 비해 1.7% 줄어든 88만2천t으로 예상되지만, 전국에서 가장 많은 생산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매년 쌀 생산량의 15% 이상이 재고로 남는 점을 감안할 경우 전남의 경우 올 쌀 생산량 중 15만t 가량이 재고로 남을 것으로 추정된

다. 여기에 지난 9월 말 현재 전남 쌀 재고량 2만1천t까지 포함하면 누적 쌀 재고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올해 정부의 공공비축물량이 작년에 비해 3만t이 줄어든 37만t으로 예정돼 있어 전남 쌀 수매량도 작년에 비해 줄어드는 점도 쌀 재고량을 부추기는 원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정부가 이날 올해 생산된 쌀 10만t 이상을 추가 격리하기로 했지만, 이러한 대책이 전남 쌀 재고량을 어느 정도 덜어 줄지는 의문시 되고 있다.

한편,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은 7일 오전 10시 전남 각 시·군 농협 RPC(종합미곡처리장) 앞에서 쌀값 안정 대책을 촉구하는 'RPC 봉쇄투쟁'에 들어가기로 했다.

광주전남연맹은 "쌀 유통의 50%를 책임지는 농협이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저가미 판매로 오히려 쌀값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농협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RPC 봉쇄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한승헌 변호사가 회고하는 '인간 DJ' ▶5면



6일 서울 동작동 국립헌정원에서 열린故 김대중 전 대통령 묘비제막식에서 이회호 여사와 내빈들이 고인의 업적이 담긴 묘비를 바라보고 있다. ▶관련기사 5면 /연필뉴스

## '저속철' 요금만 올리나

### KTX-II 5% 인상 추진 광주~영산 4만원 넘어

한국철도공사가 올해 12월부터 호남고속철도에 투입되는 KTX-II의 요금을 현재 운행되고 있는 KTX 요금보다 5% 높게 적용할 예정이어서 광주~영산 구간의 일반실 요금이 4만원대가 넘어서 이용객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6일 한국철도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KTX 객실 운영 및 운임·요금설정' 자료에 따르면 올해 12월부터 호남고속철도에 배치될 신규고속차량

인 KTX-II의 운임은 기존 KTX 요금의 5%를 인상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광주~영산, 광주~목포 구간의 KTX의 일반실 요금이 3만8천400원, 4만3천300원이라는 점에서 같은 구간의 KTX-II의 요금은 각각 4만320원, 4만5천460원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한국철도공사는 요금 인상 요인으로 KTX-II의 차량이 10량으로 구성, 20량으로 구성된 KTX에 비해 절반

에 불과한데다 편의시설 확충과 좌석 개선 등으로 1차량 좌석수가 기존의 57석에서 47석으로 줄어들었다는 점을 제시했다.

그러나 호남고속철도가 아직까지 '저속철'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다 이용객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에서 KTX-II의 요금은 '고속철'이 현실화되는 오는 2014년 이후에나 인상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한국 청소년축구 4강 재현하나 ▶18면